

## 『臨證指南醫案』卷一 「眩暈」에 대한 고찰

申 舜 植\*

### 1. 머리말

『臨證指南醫案』은 예티엔스[葉天士]<sup>1)</sup>가 평소 진료한 임상기록부를 그의 제자인 후아시우윈[華岫雲] 등 12인이 정리하여 완성한 것이다.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어 그가 당시에 직면한 질병을 어떻게 보고 대처했는지를 사실적으로 보여준다는 데서 더욱 실제적이다. 그리고, 실제임상경험에 근거하여 이론을 전개하였다는 데서도 고무적이다.

「卷1」의 「眩暈門」에 예시된 16예의 어지럼증에 대한 임상사례를 통해서(표1. 참조), 티엔스는 어지럼증이 생기는 원인을 무엇으로 보았고, 그 원인에 따른 病機와 症狀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보고, 그리고 이의 대처 방안으로 한약을 어떻게 활용하였는지를 밝혀봄으로써 티엔스의 辨證論治觀을 이해하여 보고자 한다.

표1. 「卷1」 「眩暈門」에 예시된 16예의 어지럼증 임상사례

나이	환자수	性別	비고
21~25	1	男	
26~30	1	男	
31~35			
36~40	1	男	
41~45	1	男	
46~50	1	男	
51~55			
56~60			
61~65	1	男	
66~70			
71~75	1	男	
나이모름	8	男	
총 수	16		

### II. 어지럼증의 原因

티엔스는 어지럼증이 생기는 원인을 痰·火·風 虛로 보았다. 즉, 中氣가 虛하면 痰이 생기고; 心神이 過勞하고 陰虛하며 絡熱이 있으면 火가 오르는데 이는 肝陽의 상승이다. 火가 지나치게 오르면 風<sup>2)</sup>이 발

\* 韓國韓醫學研究所 基礎研究部 醫史文獻研究室

1) 인명·지명 등 고유명사의 중국음에 대한 우리말 표기는 씨케이 시스템(김용욱,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동나부, 1986: 349-361.)에 의한 것이다.

2) 여기서의 風은 內風·肝風을 말하는데,

생하며; 또, 腎陰虛<sup>3)</sup>와 營血虛의 虛가 나타난다.

임상에서는 단독으로 나타나지 않고 痰火·痰火風·風痰·虛火·虛火風 등 겹하여 나타난다. 그러므로 티엔스는 치료할 때 앞뒤·輕重·緩急을 고려하여 치료방침을 세워 처방을 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 III. 어지럼증의 病機

어지럼증이 생기는 기전을 티엔스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痰이 많고 胃脘속은 시원하지 않으며 煩하면 火가 오르고 어지럽다.<sup>4)</sup>
2. 痰火風이 몸의 윗부분에 있으면 혀가 마르고 어지럽다.<sup>5)</sup>
3. 평소 술을 즐겨 먹는 사람이 中氣가 虛하여 생긴다.<sup>6)</sup>
4. 痰이 많이 끓으며 가슴이 저리고 박혀 답답한[胸痺窒塞]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것은 淸陽이 조금 돌고 內風이 날로 끓어서 그런 것이다. 봄철에 地氣의 上升을 당하면 風痲에 걸리까봐 가장 우려된다.<sup>7)</sup>

5. 痰이 많이 끓어오르고 어지러운 것은 心神이 過勞하고 陽이 오르고 風이 움직여서 그렇게 된 것으로 過飲하여 오르는 것을 도와서는 안된다.<sup>8)</sup>

6. 內風에 痰을 끼면 그렇다.<sup>9)</sup>

7. 肝風이 몸안에서 끓어올라 津液을 집탈하고 불사르면 머리가 어지럽다.<sup>10)</sup>

8. 肝風의 動逆이 범추지 않으면 머리가 어지럽다.<sup>11)</sup>

9. 內風이 거슬러올라가면 머리가 어지럽다.<sup>12)</sup>

10. 氣火가 上升하면 머리가 어지럽고 甚하면 깨우고자 한다. 厥陰이 위에서 간섭을 하고 오래되면 陽明은 下降 기능을 잃게 되어 土는 木의 이김을 받아 脾와 胃는 모두 다치게 된다.<sup>13)</sup>

11. 놀래고 두려움을 지닌데다, 相火와 肝風이 위를 숨어서 공격하면 눈이 떨리고 머리가 어지럽다.<sup>14)</sup>

12. 絡脈속의 熱이 陽氣로 변하여 나타나고 內風이 위를 뒤집어 쓴 것으로 이는 근본적으로 아래가 허하고 熱이 內風으로 된 것이 위에 있기 때문이다. 上實下虛이다.<sup>15)</sup>

玄谷은 몸안의 發生機能(肝氣)活動에 異常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尹吉榮 著, 『東醫臨床方劑學』, 서울: 明寶出版社, 1985: 22.)

- 3) 티엔스는 陰虛 下虛로 통일된 표현을 쓰고 있지 않는데, 문맥맥락에서 보면, 모두 腎陰虛와 같은 뜻이다.
- 4) “痰多, 脛中不爽, 煩則火升眩暈.”(葉天士 原著; 徐靈胎 註評, 『臨證指南醫案』, 서울: 翰成社 複寫發行(香港商務印書館 原發行), 1982: 31.)
- 5) “痰火風在上, 昏乾頭眩.”(앞의 책, 32.)
- 6) “酒客中虛.”(앞의 책, 32.)
- 7) “痰多, 胸痺窒塞, 此淸陽少旋, 內風日沸. 當春地氣上升, 最慮風痲.”(앞의 책,

32.)

- 8) “痰多眩暈, 心神過勞, 陽升風動, 不可過飲助升.”(앞의 책, 32.)
- 9) “內風挾痰.”(앞의 책, 32.)
- 10) “肝風內沸, 劫燦津液, 頭暈.”(앞의 책, 32.)
- 11) “肝風動逆不熄, 頭暈.”(앞의 책, 33.)
- 12) “內風逆, 頭暈.”(앞의 책, 33.)
- 13) “氣火上升, 頭眩, 甚則欲嘔吐; 厥陰上干, 久則陽明失降, 土被木剋, 脾胃俱傷.”(앞의 책, 33.)
- 14) “操持驚恐, 相火肝風上竄, 目跳頭暈.”(앞의 책, 33.)
- 15) “絡脈中熱, 陽氣變現, 內風上冒, 是根本虛在下, 熱化內風在上. 上實下虛.”

13. 暈厥이 煩勞하면 곧, 발작하는 것은 水가 모자라 木을 培養하지 못하고 厥陽이 風으로 바뀌어 鼓動하고 煩勞하여 陽이 올라가 病이 곧 발작하는 것이다.<sup>16)</sup>

14. 煩勞로 陽氣가 크게 움직여 內風으로 바뀌면, 이것이 곧장 淸空을 뒤집어 써서 드디어 어지럽게 된다.<sup>17)</sup>

15. 營虛하고 內風이 거슬러올라가면 心悸와 머리가 어지럽다.<sup>18)</sup>

16. 고령에 제법 밥 잘먹고 편안하게 잠도 잘 자는데, 봄·여름 이후에 머리가 어지럽고 발등이 부으며 잘 걸을 수가 없는 것은, 上實下虛로 그런 것이다. 腎氣가 쇠약하면 攝納을 주관할 수 없고; 肝風이 움직이면 淸竅가 점차로 뒤집어 쓰게 된다.<sup>19)</sup>

티엔스는 어지럼증이 생기는 원인을 痰·火·風·虛로 보았다고 앞서 서술하였다. 그러면 痰·火·風·虛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겨 어지럼증이 생기는 기전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3을 보면 痰은 中氣가 虛하여 생기는 것을 알 수 있는데, 中氣는 脾胃의 氣를 말한다. 火는 肝陽을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즉, 淸陽(4)·陽(5)·氣火(10)·相火(11)·陽氣<sup>20)</sup>·熱<sup>21)</sup>(12)·厥陽

(13) 風은 玄谷이 말하는 春안의 發生機能(肝氣)活動에 異常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sup>22)</sup> 內風 또는 肝風을 말한다. 虛는 腎陰虛와 肝陰虛를 말한다. 여기에서는 下虛(12·16)와 營虛(15)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肝과 腎이 下焦이기 때문에 下虛로 표현한 듯하고 營虛는 營血의 營이 虛한 것이 아니고 陰이 虛하다는 뜻으로 쓰인 듯하다. 왜냐하면, 이 조문에서 쓴 약물을 보면, 營血이 虛할 때 쓰는 四物湯類의 약을 쓰지 않고 腎陰虛나 肝陰虛에서 쓰는 枸杞子·柏子仁·三角胡麻·川斛 등을 썼기 때문이다.

몸의 생리상 腎陰은 肝陰을 길러주게 되어 있는데(水生木), 腎陰이 虛할 경우 腎陰이 肝陰을 길러주지 못하여 肝陰과 상대적인 평형관계를 이루고 있던 肝陽이 치우쳐서 왕성하게 되고 심하면 肝陽이 內風을 발생시키는 단계로 진행되고 肝風은 몸 위의 淸竅를 덮어써서 어지럼증이 일어나게 된다.(14·16) 肝陽이 肝風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肝陽은 脾胃의 陰을 다치는(木克土) 경우도 있다.(10) 脾胃의 氣가 虛하여 생긴 痰과 肝腎의 陰이 虛하여 생긴 肝陽, 肝風이 몸의 윗부분을 어지럽히면 어지럼증이 생기게 마련이다.(2) 따라서 티엔스는 어지럼증은 한마디로 上實下虛해서 생긴다고 한 것이다. 上實은 痰·肝陽·肝風이 몸의 윗부분을 괴롭히는 것이고; 下虛는 몸의 아랫부분인 肝과 腎이 虛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임상에서는 上實이 더 심하나 아니

(앞의 책, 33-34.)

16) “暈厥, 煩勞即發, 此水虧不能涵木, 厥陽化風鼓動, 煩勞陽升, 病斯發矣.”(앞의 책, 34.)

17) “煩勞陽氣大動, 變化內風, 直冒淸空, 遂爲眩暈.”(앞의 책, 34.)

18) “營虛, 內風逆, 心悸頭暈.”(앞의 책, 34.)

19) “高年頗得納穀安寢, 春夏以來, 頭暈跗腫, 不能健步, 此上實下虛, 腎氣衰, 不主攝納, 肝風動, 淸竅漸蒙.”(앞의 책, 34.)

20) “絡脈 속의 熱이 陽氣로 변하여 나타난 것”(12)과 “煩勞로 陽氣가 크게 움직여”(14)중의 “陽氣”를 말한다.

21) “熱이 內風으로 된 것이”중의 熱을 말한다.

22) 尹吉榮. 위의 책, 22.

면 下虛가 더 심하나 上實중에서도 痰이 더 심하나 肝陽이 더 심하나 肝風이 더 심하나 아니면 이들이 어떻게 兼하고 있느냐 또, 下虛의 경우 肝陰虛가 심하나 腎陰虛가 심하나의 정도 차이가 있어 치료할 때는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대처해야 한다.

#### IV. 어지럼증의 症狀

痰火證: 왼손은 浮弦數脈이고 痰이 많고 가슴이 불편하고 답답하며 火가 올라 어지럽다.

痰火風證: 혀가 마르고 머리가 어지럽다.

痰風證: 弦動脈이고 어지럽고 痰이 많이 끓으며 가슴이 저리고 딱혀 답답하다[胸膈窒塞]. 맑은 물을 게운다.

內風證: 어지럽고 목구멍과 혀가 마른다.

虛火證: 兩寸脈이 浮大脈이고 氣火가 上升하면 머리가 어지럽고 甚하면 깨우고 자 한다.

虛火風證: 눈이 떨리고 머리가 이치러우며 精力이 弱하고 오줌이나 정액을 자리고 자하고 왼손의 脈은 弦動脈이고 오른손의 맥은 小平脈이 나타난다.

虛風證: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럽다. 고령에 제법 밥 잘먹고 편안하게 잠도 잘 자는데, 봄·여름 이후에 머리가 어지럽고 반등이 부으며 잘 걸을 수가 없다.

#### V. 어지럼증의 치료

티엔스는 어지럼증을 치료하는데, 痰·火·風·虛의 標本·緩急·輕重·先後에 따라 적절하게 痰을 치료하는 약, 火를 치료하는

약, 風을 치료하는 약, 虛를 치료하는 약을 적절하게 배합하여 어지럼증에 대처하였다.

痰은 竹瀝·薑汁·菖蒲·橘紅·薏苡仁·二陳湯의 類로 消痰시켰고; 脾胃의 氣가 虛할 때는 人蔘·白朮·茯苓·甘草를 활용하여 中氣를 補하고; 火는 羚羊角(날것)·山梔子·連翹·香豆豉·天花粉·元參·生地黄(선선한 것)·牡丹皮·桑葉을 써서 上焦竅絡의 熱을 清泄시켰고; 風은 天麻·釣鉤藤·菊花·白茯苓 등으로 熄風시켰으며; 下虛는 熟地黄·枸杞子·天門冬·麥門冬·阿膠·白芍藥·何首烏·山茱萸·桑椹子·黑芝蔴·巨勝子·牛膝·川斛·建蓮·山藥·淡菜膠·柏子仁·三角胡麻 등으로 補腎滋肝하였다. 下虛로 肝陽이 上亢할 때는 龜板과 같은 育陰潛陽藥과 肝陽을 진압하는 牡蠣粉·茯神·靈磁石·五味子·鬱金·石菖蒲·紫石英·南棗 등의 鎮攝藥을 활용하였다.(표2. 참조)

1. 少陽과 陽明을 함께 치료하는 법을 재의한다.<sup>23)</sup>

痰과 火를 동시에 치료한다

2. 心神이 過勞하고 陽이 오르고 風이 움직여서 그렇게 된 것으로 過飮하여 오르는 것을 도와서는 안된다. 治痰에는 반드시 健中藥을 넣어 써야하는데, 여기에 熄風藥을 넣어 어지러움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sup>24)</sup>

治痰에는 반드시 健中藥을 넣어 써야하는데, 여기에 熄風藥을 넣어 어지러움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

3. 厥陰이 위에서 간섭을 하고 오래되면

23) “讓少陽陽明同治法.”(葉天士 原著; 徐靈胎 註評. 위의 책, 31.)

24) “心神過勞, 陽升風動, 不可過飲助升 治痰須健中, 熄風可緩量.”(위의 책 32.)

陽明은 下降 기능을 잃게 되어 土는 木의 이김을 받아 脾胃는 모두 다 치게 된다. 먼저 肝陽을 진압하는 것이 합당하다.<sup>25)</sup>

肝陽이 脾胃를 다쳤을 때는(木克土) 먼저 肝陽을 진압해야 한다.

- 4. 上實下虛로 먼저 標病을 시원하게 해야 한다.<sup>26)</sup>

火가 虛보다 심할 경우에는 먼저 火를 시원하게 해야 한다.

- 5. 식사를 할 수 있고 살갓이 채워져 있으면 病이 中焦와 上焦에 있는 것이 아니다. 介類로 眞陽을 沈潛시키고 鹹酸藥을 쓰는 것이 알맞다.<sup>27)</sup>

陰虛火旺하면 滋陰潛陽시켜야 한다.

- 6. 대개 腎은 溫法이, 肝은 涼法이 알맞아 溫法으로 納하고 涼法으로 佐藥을 삼으니, 바로 複方劑이다.<sup>28)</sup>

약물치료가외에도 靜坐하여 마음을 편안히 하는 수양법도<sup>29)</sup> 권유하고 있다.

### VI. 어지럼증의 예방

肝陽이 上亢하여 肝風으로 진행되어 어지럼증이 나타났을 때 치료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地氣가 上升하는 봄철에는 風辨에 걸릴 수 있음을<sup>30)</sup> 경고하고 있다.

25) “厥陰上干, 久則陽明失降, 土被木剋, 脾胃俱傷. 先當鎮肝陽.”(약의 책, 33.)

26) “上實下虛, 先潛標恙.”(약의 책, 33-34.)

27) “能食膚充, 病不在乎中上. 以介類沈潛眞陽, 鹹酸之味爲宜.”(약의 책, 34.)

28) “大凡腎宜溫, 肝宜涼, 溫納佐涼, 乃複方之劑.”(약의 책, 34.)

29) “靜坐神識稍安.”(약의 책, 31.)

### VII. 맺음말

티엔스는 어지럼증이 생기는 원인을 痰·火·風·虛로 보았는데, 임상에서는 단독으로 나타나지 않고 痰火·痰火風·風痰·虛火·虛火風 등이 겸하는 것으로 보았다. 어지럼증의 病機는 上實下虛이다. 上實은 痰·肝陽·肝風이 몸의 윗부분을 괴롭히는 것이고, 下虛는 몸의 아랫부분인 肝과 腎이 虛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어지럼증의 임상유형은 痰火證·痰火風證·痰風證·內風證·虛火證·虛火風證·虛風證 등의 겸증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티엔스는 어지럼증을 치료하는데, 痰·火·風·虛의 標本·緩急·輕重·先後에 따라 적절하게 痰을 치료하는 약, 火를 치료하는 약, 風을 치료하는 약, 虛를 치료하는 약을 적절하게 배합하여 이를 치료하였다. 痰은 消痰法을; 脾胃의 氣가 虛할 때는 補中氣法을; 火는 清泄法을; 風은 熄風法을; 下虛는 補腎滋肝法을 썼다. 下虛에 肝陽이 上亢할 때는 育陰潛陽藥과 鎮攝藥을 같이 활용하였다. 또 한약요법 이외에도 정좌수양법을 권하고 있다.

조기에 어지럼증을 치료하여 風辨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티엔스의 辨證論治觀은 실제임상에 근거를 두고 병을 진단하고 또 치료하고 있음을 보다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색인어 : 어지럼증, 『臨證指南醫案』, 眩暈, 原因, 病機, 치료

30) “清陽少旋, 內風日沸. 當春地氣上升最慮風辨.”(약의 책, 32.)

표2. 티엔스의 한약사용 현황

환자	한약									
徐某	羚羊角	連翹	香豆豉	廣皮白	半夏麩	黑山梔				
某	天麻	鉤藤	菊花	橘紅	半夏麩	茯苓	山梔	花粉		
某	陳	朮	白茯苓	鉤藤	天麻					
江(50)	明天麻	白茯苓	桂枝木	半夏	橘紅	茯苓	苡仁	炙草		
	『外系』 茯苓飲	羚羊角	桂枝	竹瀝	薑汁					
吳(45)	九蒸白朮	炒杞子	白茯苓	茯苓	菊花炭					
周某	半夏	茯苓	廣皮	天麻	鉤藤	菊花				
張	大生地	天冬	麥冬	黃肉	阿膠	生白芍				
陳	九製首烏 (4兩)	甘菊炭 (1兩)	杞子 (2兩)	桑椹子 (2兩)	黑芝炭 (2兩)	巨勝子 (1.5兩)	牛膝 (1.5兩)	茯神 (2兩)	青葉汁	
洪(40)	經霜桑葉 (1錢)	炒黃甘菊 花炭(1錢)	生左牡蠣 (3錢)	黑糯米皮 (3錢)	徽州黑芝 炭(2錢)	茯神 (1.5錢)				
某	製首烏	稽豆皮	炒杞子	柏子仁	紫石英	茯神	天冬	南棗		
某	生地	白芍	丹皮	鉤藤	天麻	白茯苓	黃菊花	橘紅		
王(63)	羚羊角	元參心	鮮生地	連翹心	鬱金	石膏滿				
	羚羊角	元參心	鮮生地	連翹心	川貝	花粉				
某(24)	熟地(4兩)	龜板(3兩)	牡蠣 (3兩)	天冬 (1.5兩)	黃肉 (2兩)	五味 (1兩)	茯神 (2兩)	牛膝 (1.5兩)	遠志 (7錢)	靈磁石 (1兩)
田(27)	淡菜膠	龜版膠	阿膠	熟地	黃肉	茯苓	川椒	建蓮	山藥炭	
嚴(45)	炒杞子	柏子仁	三角胡麻	川斛	生左牡蠣	冬桑葉				
李(73)	附都氣	車前	淡天冬	建蓮						

참고문헌

1. 김용욱.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통나무, 1986.
2. 尹吉榮. 『東醫臨床方劑學』. 서울: 明寶出版社, 1985.
3. 葉天士 原著; 徐靈胎 註評. 『臨證指南醫案』. 서울: 翰成社 複寫發行(香港商務印書館 原發行), 1982.

## Abstract

Study on 『Medical Records as a Guide to Clinical Works』 『Volume 1』 『dizziness』

Soon-Shik Shin, OM.D, Ph.D\*

『Volume 1』 of 『Medical Records as a Guide to Clinical Works』, written by Ye Tian Shi, showed some clinical cases of dizziness. In this study, his diagnosis and treatment was studied with 16 clinical cases of dizziness with pathogenic factor, pathogenesis and symptoms of dizziness.

Ye Tian Shi thought that phlegm, fire, wind and insufficiency were the causes of dizziness and phlegm-fire, phlegm-fire-wind, wind-phlegm and insufficiency-fire-wind were the causes of dizziness, clinically. Dizziness is caused when the body is in condition of excess in the upper and deficiency in the lower. The accompanying clinical symptoms of dizziness are endogenous wind, fire of deficiency type, phlegm-wind and phlegm-fire.

For the treatment of dizziness, Ye Tian Shi used the combination of medicines with some modifications by the cases for phlegm, fire, wind and insufficiency. He also encouraged the mental therapy for the treatment of dizziness. He emphasized the early treatment of dizziness to prevent hemiplegia after apoplexy.

It can be postulated from Volume 1 of 『Medical Records as a Guide to Clinical Works』, diagnosis and treatment of symptoms and illness of Ye Tian Shi was strictly based on actual clinical cases.

---

\* Department of the History of Oriental  
Medicine and Oriental Medical  
Literatures,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